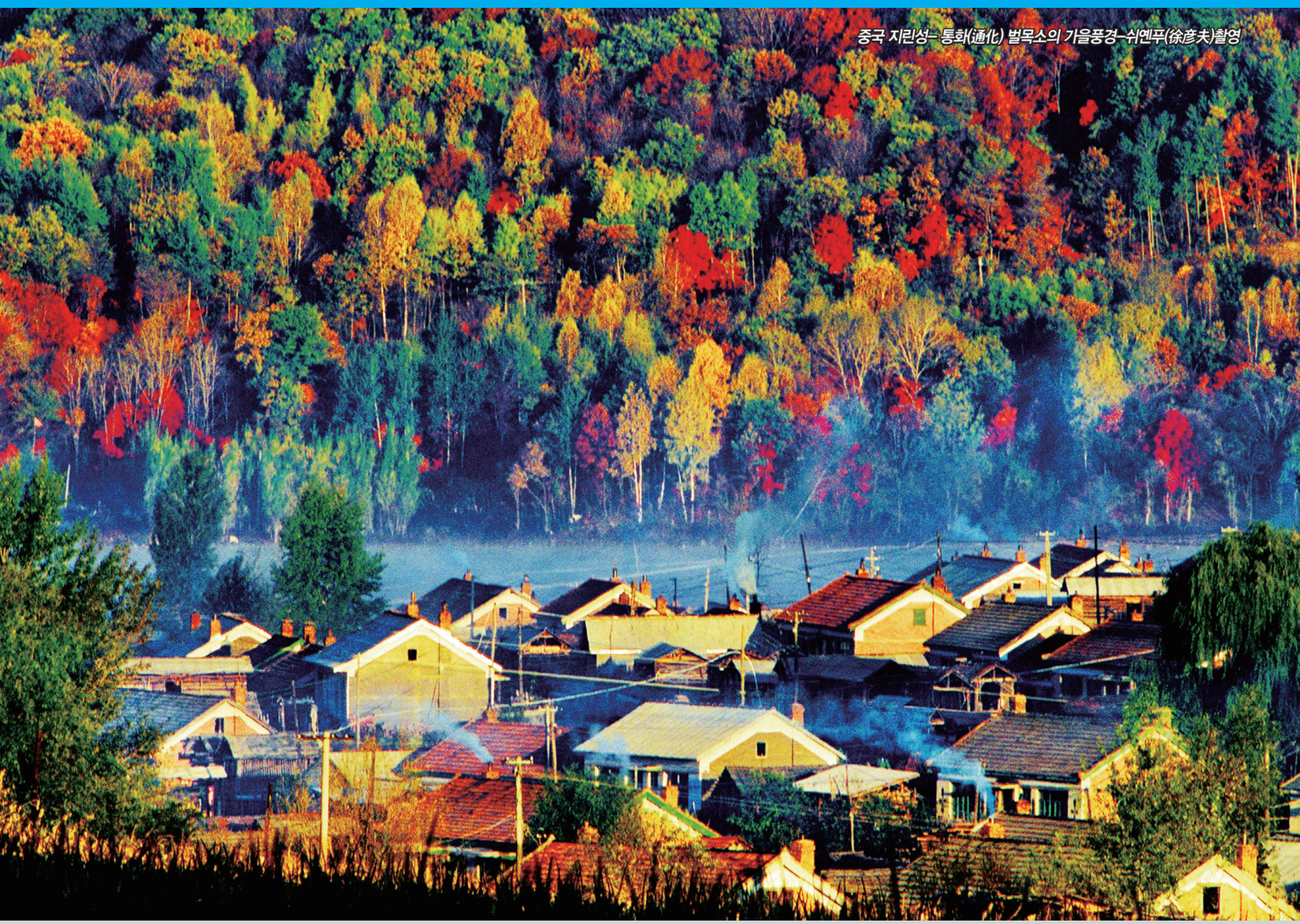
NEAR News

하나되는 동북아시아, 하나되는 공동체 NEAR | One Northeast Asia Region, One Community NEAR

2015. 9-10

Vol. 64



중국 지린성- 통화(通化) 벌목소의 가을풍경-쉬옌푸(徐彦夫)촬영

특별 기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몽골의 지위

이번 호의 동정

NEAR활동 | 사무국소식 | 회원자치단체 동정 | 회원단체 행사일정

기획취재

제10회 중국-동북아박람회 | 회원국의 다양한 추석문화

NEAR 회원탐방

한국 제주특별자치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NEAR News

NEAR News는 회원단체의 소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NEAR의 공식 메신저로 창간되었습니다. NEAR사무국의 활동상황, 회원단체 동정, 각종기고 및 공지사항 등을 담아 격월로 발간하여, 회원단체 및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NEAR 홈페이지에도 게시됩니다. NEAR News는 회원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식지이며, 동북아시아지역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NEAR News에 수록하고 싶은 좋은 원고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NEAR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Vol. 64

한국 제주특별자치도– 동홍동민속보존회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몽골) 78개 광역지방정부(73개 정회원 및 5개 옵저버단체)로 구성된 동북아의 대표적인 지방외교협력체이자 국제기구입니다.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연합헌장을 채택하고 경제인문, 교육문화교류, 환경, 방재, 변경협력, 과학기술, 관광, 해양어업, 광물자원개발 조정, 에너지 기후변화, 여성 아동, 생명의료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럽최대의 지방정부 협력기구인 AER(유럽지방정부연합), R20(기후변화행동연합) 등 국제기구와도 교류를 활성화하여 파트너십 체결, 공동사업추진 등 동북아를 넘어서 전세계와 소통하는 국제협력네트워크의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NEAR의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지역에 위치하고 연합의 설립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광역지방정부는 연합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NEAR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특별기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몽골의 지위

자밍 바트투르
몽골국립대학교, 국제관계대학
역사학 박사(Ph.D), 부교수

지역주의

오늘날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지역화 즉 "Regionalization" 이다. 이 현상에 대한 개념, 사상, 방향을 지역주의 즉 "Regionalism" 이라고 한다. 지역주의는 국제교류에 대한 연구에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글로벌화와 함께 더욱 더 활성화되고 있다.

지역주의("Regionalism"), 지역("Region")은 넓은 의미의 복잡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은 지리적 개념이지만 국제교류 영역에서 보면 지리보다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역주의를 사회적 영역에서 보면 문화, 역사, 언어적으로 공통성이 있는 국가들을 포함한 개념이 된다. 경제적 영역에서 보면 경제무역, 거래교류가 가장 많이 전개되는 국가들을 말할 수 있다. 또는 인프라, 통신망이 밀집된 일부의 국가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세밀하고 넓게 보면 지역주의는 일정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학문적인 개념이다. 즉, 어떤 영역에서 보느냐에 따라 개념이 달라진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몽골과 중국을 언어와 문화적으로 하나의 지역으로 볼 수 없으나, 경제협력 면에서는 동북아시아에 속한다.

몽골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 여러 차례 가입 신청을 했으나 환태평양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다. 동북아시아국가라는 측면에서 몽골은 중국, 일본, 한국 등 이 지역의 국가들과 넓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리적 측면에서 보면 특히 몽골의 서쪽 지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몽골은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등 문화적 차이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넓은 차원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는 '지역주의학'이란 개념은 어떠한 분야를 통틀어 지역이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무역학자들의 경우 국제무역블록을 지역과 연결할 수 있다. 정치학자의 경우 지역의 정체성이란 면에서 볼 수 있다. 문학가는 몽골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동화 설화의 동질성을 지역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이 몇 가지 예를 볼 때 지역학은 수 많은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아시아지역

지역협력, 집합이 발전하는데 해당 지역국가들의 공통적 이익, 이해관계, 문화 전통 등 여러 기초조건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는 여러 측면으로 공통적 지역주의가 현실화되는데 걸림돌이 많은 지역이다. 우선, 이 지역민들의 문화, 언어, 종교 등 핵심 요소가 상호간에 다르다.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60%가 거주하고 있는,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유교, 불교, 무슬림, 힌두교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종교가 동시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언어도 다양하다. 또한 생활패턴, 발전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관심, 이해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은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다. 서남아시아의 경우 종교적 갈등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지역주의가 성립되기 어렵다. 그렇지만 아시아지역의 협력, 지역주의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동북아시아

아시아 대륙의 20%를 차지하는 이 지역에 동시베리아, 극동, 한반도, 몽골의 동쪽지역, 만저우리(만주르), 북중국, 일본열도가 위치한다. 넓은 의미로 일본, 대한민국, 조선인민공화국, 중국, 러시아연방, 몽골 6개국이 속한다. 동북아시아지역에 아시아 인구의 10% 즉, 3억 인구가 살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과 맞물릴 정도로 큰 시장이란 뜻이다

동북아시아에서 몽골의 특징

먼저, 몽골은 세계의 3대 큰 문명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으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쪽으로는 그

1986년에 지역의 평화, 협력발전, 핵전쟁 예방을 위한 범아시아 총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비록 당시 아시아내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 구현이 실현되지 않았으나 미국, 중국, 일본 등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몽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리스정교 국가인 러시아, 남쪽으로는 동아시아의 주요 사상인 유교의 국가인 중국, 서쪽으로는 무슬림교의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신강위고르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몽골의 바양울기아이막 인구의 상당수는 무슬림교인이다.

국제교류학에 국가들을 권력(Power)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약소국(Small Power)
- 중간국, 중급국(Middle Power)
- 강대국(Big Power)
- 지역강국(Regional Power)
- 초강대국(Super Power or World Power)

약소국이란 강대국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나라를 의미한다. 몽골의 후진상태, 특징은 대외정책, 사회경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 별도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으로 간략한다. 몽골은 또 지역내에서 샌드위치 지위에 있다. 샌드위치 지위에 있는 국가는 주로 작으며 2개 강대국 사이에 있는 특징이 있다. 몽골은 동북아사아에서 유일한 내륙국이다. 바다에 접하지 않은 것은 사회, 경제 더 나가서 정치 면에서 불리하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국가들 중에서 몽골의 차별되는 지위는 무핵국가인 것이다. 상호 불신의 관계로 동북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러시아, 미국, 중국은 수많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수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의 영향 안에 있다.)

따라서 몽골이 자국의 안보를 독특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특히 UN의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은 몽골의 안전보장을 문서로 확정한 것이다. 이미 1990년부터 검토하여 1992년 UN 제47차 총회에서 몽골이 스스로 비핵지대임을 선포하였다. 그 이후 20년 계속된 노력으로 2012년 9월 12일 UN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은 몽골의 이런 지위를 문서로 확정했다. 그 전 1998년 12월 4일에는 UN 총회에서 결의안 초안이 채택되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몽골의 이니셔티브

한반도 분단과 갈등은 오늘 날 동북아시아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가 되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 대결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동북아시아에서도 세계에서도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더욱 더 분명해지고 있다.

몽골 정부에서 1981년에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평화제도의 중요성을 밝혀 전쟁 그 중에서 핵전쟁 유발을 막기 위해 협력하자는 이니셔티브를 구현하여 아시아 태평양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표명하였다. 1981~1983년에 아시아의 36개국, 태평양의 11개국, 기타 국가를 포함하여 총 50개국의 국가원수에게 문서로 보냈으며 19개국에서 몽골의 정책을 지지한 답신이 왔다고 한다.

그리고 1986년에 지역의 평화, 협력발전, 핵전쟁 예방을 위한 범아시아 총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비록 당시 아시아내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 제안이 실현되지 않았으나 미국, 중국, 일본 등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몽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점차 아시아태평양이란 큰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워 보여, 몽골이 속하고 있는 동북아시아권으로 폭을 좁혀 외교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동북아시아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권(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동북쪽 국가란 개념을 도입하였다.

1989년 몽골은 할힌걸 전투(Battles of Khalkhiin gol) 50주년을 기념하였다. 주년 기념회에서 몽골정부는 아시아태평양의 동북아 국가들간 수시로 작용되는 협정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전쟁 그 중에서 핵전쟁 공동방지, 공동번영이란 이니셔티브를 구현하였다. 이 이니셔티브와 외교정책을 지역의 국가들 특히 북한에 본격적으로 소개하여 이해시키도록 노력을 하였다. 몽골정부에서 도입한 상기의 정치, 외교정책의 구상들, 그들과 연계하여 추진한 폭넓은 외교 협력은 동북아시아에서 몽골이 스스로의 지위를 강화하는데 디딤돌이 되었다. 이것을 국내외의 학자들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 학자 "오더 바르크만"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대외정책적으로 발생한 이 새로운 조건(환경)은 단독적(독자적) 활동을 할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였다. 미국이 몽골과 수교를 하

고, 몽골이 일본과 교류를 활성화되어 중국과도 우호교류를 회복하였다. 외교를 이렇게 확대함으로써 몽골은 국내경제 문제 관련 새로운 파트너들과 상호 협의하고, 스스로의 발전에 대한 특성을 그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열렸다.

몽골의 이니셔티브 신세기

이러한 구상과 도전, 그리고 노력으로 몽골은 지역내의 모든 국가와 특히 남북한과 우호적 교류를 체결하여 실질적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몽골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유지, 남북 통일에 기여를 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올란바타르 선언' 이란 이니셔티브이다. 이것을 엘벡더르즈 몽골 대통령이 2013년 4월 개최된 민주주의 공동체 제7차 각료회의 때 제안하였다. 이 구상의 공식 명칭은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에 관한 '올란바타르 선언'이다.

울란바타르 선언의 주요 아젠다는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고, 지역 회의에 북한을 참여시키고, 지역내 신뢰를 강화하는데 있다. 지난 기간 동안 몽골 외교부에서 '올란바타르 선언' 이니셔티브에 관한 각서(Memorandum)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2014년 6월에 국제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국제학술회의를 앞으로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 대한민국, 조선인민공화국, 미국, 중화인민국, 러시아연방, 일본국 및 유럽 국가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올란바타르 선언은 협의메카니즘으로써 정책 수립가들, UN 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등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경제협력, 국방분야의 투명성, 환경문제, 안보의 비전통적 위협, 지역의 안전성, 교육문화교류에 관해 협력 가능성, 기회를 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몽골 대통령이 북한 방문기간에 2013년 11월 1일 김일성 대학교에서 연설을 한 것은 동북아시아, 북한에 대한 정책을 정의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역에서의 몽골의 장점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전 보장의 메커니즘 즉 평화제도가 미흡하며 몽골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정치적 군사적 포부가 크다. 북한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경제성장이 높은 국가들이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서로 갈등과 분쟁 속에 있다. 그것은 – 영토(섬)분쟁, 국경(중국–일본, 러시아–일본, 남한–일본, 중국–남한, 남한–북한 NLL) 등이다. 그러나 몽골의 장점은 이들 국가와 영토, 국경 분쟁이 없다. 지난 역사, 특히 근대 이후로 분쟁과 다툼이 없다. 지역의 모든 국가와 역사에 관한 공동연구조사, 고고학적 분야의 협력을 긴밀히 하고 있다.

그 외에 동북아시아의 모든 국가와 정치, 경제, 통합 등 제반의 교류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협력이 성공적이었다. 예를 들면, 일본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러시아와 '전략적 파트너 협정 체결,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 협정 체결, 미국과 2004년 '무역투자총괄협정과 2013년에 '국제무역, 투자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몽골 및 미국간 협정 체결 또는 2014년에 몽골과 미국의 안보에 관한 공동 성명'에 양국의 국방부 장관들이 서명, 한국과 '동반자 협정' 체결, 북한과 2002년에 우호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울란바타르 선언의 주요 아젠다는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고, 지역 회의에 북한을 참여시키고, 지역내 신뢰를 강화하는데 있다. 지난 기간 동안 몽골 외교부에서 '올란바타르 선언' 이니셔티브에 관한 각서(Memorandum)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2014년 6월에 국제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국제학술회의를 앞으로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NEAR 활동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개최(7.31~8.5)

동북아시아지역 청년들이 시마네현에서 교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각 지역의 상호이해와 우호교류의 증진을 도모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하는 '2015 동북아시아교류의 날개 in 시마네'가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6일간 일본 시마네현 마츠에시에서 열렸다. 올해는 한국에서 위덕대학교 3명, 동국대학교(경주) 3명, 중국에서 닝샤 3명, 지린성 3명, 러시아 연해변경주 3명, 일본 시마네현립대학교 6명 등 21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였다.

금년 주제는 "다문화의 이해"로, 홈스테이, 전통문화체험, 테마관련 시설 등 견학하여 일본가정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하였다.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다.

일 자	주요 내용		장 소
7월 31일	오후	시마네현 마츠에시 집합 환영회 자기소개 및 시마네현 소개 교류활동	시마네현 마츠에시 시마네국제연수관 숙박
8월 1일	오전 오후	홈스테이 오리엔테이션 환영교류회 & 홈스테이	시마네현 내 홈스테이
8월 2일	종일	홈스테이	시마네현 내 홈스테이
8월 3일	오전 오후	집합, 시찰 시찰, 일본문화체험	시마네현 이즈모시 키라라코테지 숙박
8월 4일	오전 오후	그룹활동 의견교환회 송별회 겸 석식	시마네현 마츠에시 시마네국제연수관 숙박
8월 5일	오전	해산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개최(8.26~8.28)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는 회원단체의 경제인문 관계자를 초빙하여 동북아 공동관심사인 경제인문분야 공동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와 우수사례연구를 위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분과위원회 회의내용으로 기조강연, 주제토론, 사례발표, 특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에는 경주에서 개최하는 "실크로드경주2015"를 관람할 예정이다.

농업분과위원회 개최(10.20~10.23)

제2회 농업분과위원회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개최된다. 이번 분과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전라남도에서는 고소득 생명농업육성 계획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회원단체와 함께 친환경농업 실천방안 방안 연구 및 사례발표가 있을 행사 마지막 날의 현장체험은 전남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농업박람회에 방문할 예정이다.

제10차 NEAR실무위원회 개최(10.13~10.16)

제10차 NEAR 실무위원회가 2015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NEAR의 의장단체인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의 이르쿠츠크시의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NEAR의 주요의제인 연합회비제 도입과 분과위원회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차기 의장단체의 신청을 받아 내년에 개최될 총회의제로 상정할 예정이다.

사무국 소식

NEAR사무총장일 일행, 동국대(경주캠퍼스) 방문 상호협력방안 논의

전재원 사무총장 등 사무국 일행은 6월 30일(화) 동국대(경주캠퍼스)를 방문, 이계영 총장 등을 면담하고 상호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앞으로 청년인턴 교류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교류사업, 청소년 캠프 운영 등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 ·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NEAR사무총장, 포항시 – 란저우시 우호의향서 체결식 참석

전재원 NEAR사무총장은 7월 10일(금) 포항시청에서 개최된 포항시와 란저우시간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저우 완산(周万山) 란저우시 부시장 일행은 이강덕 포항시장을 면담하고 금번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두 도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재원 사무총장은 저우 완산 부시장 일행을 오찬에 초대하여, NEAR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간쑤성 가입문제 등 향후 양측간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포항시와 란저우시 우호의향서 체결은 전재원 사무총장의 중재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NEAR 사무국은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차윤호 신임 사무처장 부임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차윤호(경북 포항출신, 56세) 서기관이 2015.7.9자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사무국 사무처장에 부임했다.

신임 사무처장은 고향인 포항시 기계면에서 초 ·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구공업고등, 방송통신대학을 나왔으며, 1994.2월 영남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3.3월 경북 영일군에서 9급 공무원을 시작으로 1989년도에 경북도청에 전입, 관광과, 지방과, 인재양성과, 정책기획관실 등 여러 부서를 근무하였으며, 2006년 사무관으로 승진해서는 고향 기계면장과 세입관리계장, 평정 · 평가계장, 조직관리계장 등 요직자리를 두루 거쳐 금번 경북도 인사에서 서기관(4급)으로 승진해 동북아 사무국으로 파견발령을 받았다.

조직관리분야에서 전문가인 사무처장이 옴으로써 동북아사무국의 조직운영체계 정비는 물론, 사무기능강화와 사무국의 역할이 크게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무국 대표단, 러시아 이르크추크주 유라시아 문화(친선) 특급행사 참가

전재원 사무총장 등 사무국 일행은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 이르쿠츠크 '유라시아 친선특급'행사에 참석하였다.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시범 사업으로 한–러 수교 25주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20일간 서울에서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베를린으로 이어지는 14,400㎞의 유라시아 대륙횡단열차이다. 이르쿠츠크주가 NEAR의 의장단체이자, 경상북도가 이번 '유라시아 친선특급'행사기간 중 이르쿠츠크의 유라시아대축제 공동주관 자격으로 참여한 만큼 전재원 사무총장은 친선특급 원정대가 이르쿠츠크에 도착하여 가진 환영행사와 유라시아 대축제 행사 등에 참석하여 원정대에게 건강하고 알찬 여정을 기원하며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또한 전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 참석 계기로 이르쿠츠크 슬로보드치코프 제1부지사를 면담하고 이르쿠츠크주가 NEAR 의장단체로서 그동안 NEAR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NEAR 실무위원회와 NEAR 창설 20주년이 되는 2016년에 개최되는 총회 등 주요행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사무국 대표단, NEAR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일본 시마네현) 참석 및 회원단체 방문

시마네현 미조구치 지사와 면담

전재원 NEAR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국일행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NEAR 회원단체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면담 후, 시마네현에서 개최하는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에 참석하였다.

먼저, 7월 30일 효고현청을 방문하여 카나자와 부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효고현은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방재 능력 향상에 공헌하고자 2002년부터 방재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단체로서, NEAR방재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효고현과 NEAR사무국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사무총장이 효고현을 직접 방문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후, 돗토리현청을 방문하여, 관광교류국 참사관을 비롯한 돗토리현 관계자들을 만났다. 돗토리현은 NEAR 창립 멤버이자 지방국제화에 가장 힘쓰고 있는 단체로서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비해, 최근 돗토리현의 NEAR행사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 사무총장이 격려 차 직접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전 사무총장은 NEAR행사에서 돗토리현만이 가진 매력인 '만화왕국'에 대한 소개 및 설명회를 가지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에바라 오사무(江原修) 참사관은 앞으로 NEAR행사에 적극 참가하고 NEAR를 통해 이러한 사업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하였다.

7월 31일 전 사무총장은 시마네현 지사실에서 미조구치 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전 사무총장은 NEAR 창립멤버이자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서 NEAR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시마네현 지사는 동북아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 NEAR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욱 깊은 교류증진을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 사무총장은 NEAR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동북아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NEAR사무국 방문

7월 31일 오후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사무국을 방문하였다. 김희수 기획경제위원장을 비롯한 8명으로 구성된 현장방문단은 먼저 NEAR홍보동영상을 시청한 후 차윤호 사무처장으로부터 NEAR의 현황, 주요 활동실적, 올해 주요업무계획 및 내년도 신규 시책 안을 보고받았으며, NEAR 사무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외국 파견공무원 및 사무국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회 NEAR 청소년에세이 공모전 개최

NEAR 사무국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세이를 공모하여 차세대 동북아시아 및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자 2013년을 시작으로 매년 NEAR청소년에세이 공모전을 실시한다. 청소년들이 공모전 참가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에 관심을 가져 동북아시아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두가지 주제로 아래와 같으며, 회원단체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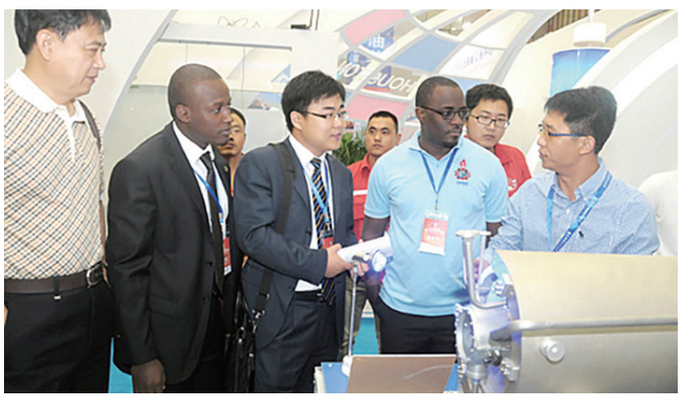
제3회 청소년에세이 공모전

- 주제 : 2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정하여 기술
  - 문화교류 : 외국과의 문화교류 관련 미담사례, 경험 등
  - 환경문제 : 동북아시아의 환경과 보호, 환경의 소중함 등
- 접수기간 : 8월 3일 ~ 9월 4일
- 분량 : A4용지 2장 내외(MS워드 Century 12pt)
- 접수처 : yujin@neargov.org 또는 국가별 담당자
- 시상 : 6명(최우수 1명, 우수 5명)

회원자치단체 동정

중국-산둥성

중국(둥잉, 東營) 국제석유석화장비 및 기술 전람회



둥잉시는 중국 산둥성 북부에 위치해있는 황하 삼각주 중심도시이자 중국에서 두번째 큰 유전인 승리유전(勝利油田)의 소재지이다. 제8회 중국(둥잉) 국제석유석화장비 및 기술전람회가 2015년 9월 17일에서 19일까지 산둥성 둥잉시 황하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산둥성인민정부가 주최하며,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둥성위원회, 둥잉시인민정부, 승리석유관리국이 주관한다.

이번 전람회는 석유장비의 기술 향상과 투자촉진, 무역 · 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석유관련 장비 및 부품기업체를 위해 새로운 시장과 전시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전람회의 전시 면적은 4만㎡, 그 중 야외전시면적인 2.2만㎡에 달한다. 행사기간 동안 "셰일가스 탐사개발 고위급 포럼"과 "전문가 협력교류 매칭대회" 등 다양한 포럼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닝샤후이족자치구

2015닝샤국제청소년교류행사 인촨에서 개최

닝샤후이족자치구인민정부 외사판공실에서 주최하는 2015닝샤국제청년교류행사가 8월 7일에서 12일까지 인촨에서 개최되었다. 일본 시마네현, 한

국 경상북도, 몽골 우브르항가이아이막 청소년 대표단이 초청에 응하여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각국 대표단은 닝샤 청소년들과 함께 중국전통문화 체험 및 현지 홈스테이, 시찰활동 등을 통해 닝샤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닝샤국제청소년교류행사는 2002년부터 시작되어 14년간 유지되어 왔으며, 닝샤와 해외 우호도시 지역 청소년간 우의 및 교류 증진을 위하고, 국제적 시야를 가진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일본－효고현

효고 · 하바롭스크 청소년교류사업 방문단, 효고현에 방문

효고현과 우호제휴 관계에 있는 러시아 하바롭스크변경주는 효고현의 요청으로 2006년부터 '효고 · 하바롭스크 청소년교류사업'을 실시하였고, 매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호 파견하고 있다.

올해는 6월 30일부터 7일 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하바롭스크변경주의 청소년 환경보호단체 15명이 효고현을 방문했다. '현민 인간과 자연 박물관'에서 환경학습을 체험하였고, 그 외에도 홈스테이(일본 가정집 방문), 일본문화체험 등의 교류활동을 했다.

또한 7월 1일에는 이도 토시조(井戸敏三) 효고현 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도 지사는 하바롭스크와 우호교류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하바롭스크 방문단은 환경보호 활동에 대해서 설명했다.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양현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

이도 효고현 지사와 기념촬영

일본－시마네현

마쓰에성의 천수각(天守閣, 성의 중심이 되는 건조물)이 일본국보로 지정

마쓰에성 천수각(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 소재)이 2015년 7월 8일자로 정식 일본국보로 지정되었다. 마쓰에성은 1611년(에도시대)에 그 당시 무사인 '호리오 요시하루(堀尾吉晴)'가 설립. 일본 내 현존하는 12개 천수각 중 하나로, 천수각 평면 규모로는 일본 내 2위, 높이는 3위, 그리고 5번째로 오래된 건축물이다. 4층 5계(밖에서 보면 4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5층 구조), 지하 1층도 있고, 높이 약 30미터. 지붕이 새가 날개를 편듯하다고 하여 '치도리(千鳥, 많은 새)성'이라는 별명도 있다. 주로 검은색을 바탕으로 한 천수각은 마쓰에시를 대표할 만큼 사랑 받고 있다.

마쓰에성의 구조는 천수각을 향해 공격해오는 적을 막기 위한 '이시오토시(벽을 기어오르는 적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장치)'와 '뎃포 스키마(대포 틈이라는 뜻으로 대포를 발사하기 쉽도록 벽에 대포 둘레만큼의 구멍을 만듦)'가 있다. 이들 구조는 외부에서 잘 안 보이도록 되어 있으며, 그 당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마쓰에성에는 쉽게 적이 접근할 수 없도록 성 주위의 땅을 판 수로가 있다. 이 수로 위를 유람선을 타고 400년의 일본역사를 직접 느낄 수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에 일본국보로 지정되면서 국내외로 많은 관광객들이 마쓰에성을 방문하고 있고, 향후 마쓰에성을 활용한 도시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인천광역시

The Presidents Cup 2015개최

프레지던츠컵 2015 골프대회가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아시아국가 최초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개최된다. 프레지던츠컵 대회는 타이거우즈 등 세계 최고의 골퍼들 중에서 전년도 미 PGA Tour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미국대표 12명과 유럽을 제외한 세계연합대표 12명을 선발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매 홀수년에 개최되는 대회로써, 미국 PGA투어가 주관하는 대회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있는 대회라고 할 수 있으며, 명예의장을 개최국의 전 · 현직 대통령이 맡고 있다.

또한 225개국 30개 언어로 중계하고, 10억 가구가 시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1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 시키고 관광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현재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상북도

2015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경

상북도 8개시군(문경, 포항, 김천, 안동, 영주, 상주, 예천)에서 개최된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1995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시작된 대회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군인들의 화합과 경쟁의 장이자, 세계 군인들간 우의증진 및 유대강화와 세계 평화 유지 기여를 위해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우정의 어울림, 평화의 두드림'이라는 슬로건으로 100여 개국 8,7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4개 종목으로 참가하는 선수들이 겨루게 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2015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는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자,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몽골-울란바토르시

몽골 항공사,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직항

몽골 항공사(MIAT)는 8월 5일부터 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 공항으로 비행하게 되었다. 몽골 항공사는 활동을 확대하여, 여름 성수기에 나리타 공항으로 매일 비행하고 있으며, 수-토요일 비행은 하네다 국제공항으로 한다.

비행 일정	올란바타르 이륙	하네다 착륙	하네다 이륙	올란바타르 착륙
OM9507/ OM9508 수, 토	15:25	20:10	21:15	02:45(+1)

러시아-톰스크주

유라시아의 거점 대학 도시, 톰스크시

톰스크시는 서부 시베리아의 작은 도시이지만 매년 러시아의 여러 지역과 해외에서 천여 명의 학생들이 톰스크시로 대학입학을 위해 몰려든다. 톰스크시의 인구 8명중 한 명이 대학생이고 3명 중 1명 꼴로 학문연구자, 대학생이거나 대학강사이다.

지구물리학적으로 유라시아의 중심에 위치하며 톰스크의 10대 대학 중 하나인 톰스크국립대는 1880년에 설립된 아시아 최초의 대학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톰스크는 고전 문명의 지적 사상이 발생한 아테네의 이름을 딴 시베리아의 아테네로 불려지고 있다.

현재 톰스크시에 50만 명 인구에 6개의 국립 대학이 있다. 이곳의 대학생들은 철학과 의학, 석유채굴과 나노전자, 음악과 디자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이르기까지 3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분야를 가지고 있다.

톰스크시의 전체 대학생들 중 절반이상(62%) 인 7만 2천여 명의 대학생들은 러시아의 75개 다른 지역과 47개국의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이다. 이는 러시아의 다른 도시 모스크바나 상트 페테르부르크보다 유학생의 수가 많다. 해외 유학생들 중 다수의 대학생들은 카자흐스탄, 중국, 몽골, 베트남, 키르기즈 등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이다.

무엇이 스마트한 젊은이들로 하여금 톰스크로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가?

우선 높은 수준의 교육이다. 톰스크대학들은 러시아 상위 10위권에 들며, 브릭스(BRIC)국 대학들에서 상위에 랭킹되어 있다. 특히 톰스크국립대와 톰스크종합과학기술대의 경우 QS 세계대학 순위에 빠르게 주요대학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저렴한 학비와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이다. 마지막으로 톰스크시는 역사적이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안전하며, 다양한 국제 대학생들이 많고 교육을 잘 받은 친절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이다.

톰스크 대학들은 중국,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외국대학들과도 협력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톰스크시는 '톰스크에서 배우자'라는 브랜드로 중국, 베트남, 몽골의 대규모 교육박람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톰스크주정부는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학교 캠퍼스, 도서관, 운동장, 병원 등 편의시설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톰스크시는 최고의 대학생들을 위한 도시 중의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TUDY IN TOMSK!

September

2015. 9

Sunday	Monday	Tuesday
	中国一东北亚博览会 China-Northeast Asia Expo	1 • 회원자치단체명 : 중국 지린성 • 행사명 : **제10회 중국-동북아박람회** • 기 간 : 9.1~9. 6 • 장 소 : 창춘시, 창춘국제컨벤션센터 • 연락처 : 중국-동북아박람회 사무국 지린성박람사무국 T. +86-431-82768300/82768200 www.neasiaexpo.org.cn
6	7	8 • 회원자치단체명 :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 행사명 : **목재가공엑스포** • 기 간 : 9.8~9.11 • 장 소 : 크라스노야르스크시 • 연락처 : T. +7-391-22-88-611 www.krasfair.ru
13	14 • 회원자치단체명 : 러시아 사할린주 • 행사명 : **국제학술회의 체흡의 저서 사할린의 섬-열린 결말** • 기 간 : 9.14~9.15 • 장 소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 연락처 : 사할린주문화부 T. +7-4242-72-33-37 F. +7-4242-72-41-72 up_culture@adm.sakhalin.ru	
20 • 회원자치단체명 : 러시아 사할린주 • 행사명 : **제5회 국제 민요 경연 페스티벌 - '삶의 원천'** • 기 간 : 9.20~9.25 • 장 소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 연락처 : 사할린주문화부 T. +7-4242-72-33-37 F. +7-4242-72-41-72 up_culture@adm.sakhalin.ru 27	21 • 회원자치단체명 : 중국 산둥성 • 행사명 : **중국 취푸 공자문화페스티벌** • 기 간 : 9.27~9.29 • 장 소 : 지닝시 취푸 • 연락처 : T. +86-531-8606-1765 28	22 • 회원자치단체명 : 러시아 사할린주 • 행사명 : **사할린 석유와 가스- 2015** • 기 간 : 9.28~10. 1 • 장 소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 장 소 : Adam Smith Conferences T.+44 20 7017 7444 email : kristinag@adamsmithconferences.com www.sakhalin-oil-gas.com/ru/ 29

October

2015. 10

		The President's Cup 2015 2015 프레지던츠컵
4 • 회원자치단체명 : 한국 부산광역시 • 행사명 : **제8회 아시안 영상정책포럼** • 기 간 : 10. 4~10. 5 • 장 소 : 해운대 그랜드호텔 • 연락처 : 2015 아시안영상정책포럼 사무국 T. +82-51-720-0348	5	6 • 회원자치단체명 : 한국 인천광역시 • 행사명 : **2015프레지던츠컵 대회** • 기 간 : 10. 6~10.11 • 장 소 : 인천 송도 국제도시 일원 • 연락처 :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 T. +82-440-4072
11	12 • 회원자치단체명 : 한국 강원도 • 행사명 : **제6차 세계산불총회** • 기 간 : 10.12~10.16 • 장 소 : 알펜시아 • 연락처 : 강원도청 글로벌사업단 T. +82-33-249-2293	13 • 회원자치단체명 : 한국 경상북도 • 행사명 : **제14차 세계한상대회** • 기 간 : 10.13~10.15 • 장 소 : 경주시 • 연락처 : 경북도청 글로벌통상협력과 T. +82-53-950-3041
18 • 회원자치단체명 : 중국 산둥성 • 행사명 : **제5회 황하삼각주 국제 친환경농업박람회** • 기 간 : 10.18~10.20 • 장 소 : 둥잉시 컨리현 • 연락처 : T. +86-543-2522490 25	2015 세계산불총회 INTERNATIONAL WILDLAND FIRE CONFERENCE PYEONGCHANG, KOREA 12-16 October 2015	20 • 회원자치단체명 : 한국 전라남도 • 행사명 : **2015 NEAR농업분과위원회** • 기 간 : 10.20~10.23 • 장 소 : 전라남도 일원 • 연락처 : 전라남도청 농업정책과 T. +82-61-286-6241 F. +82-61-336-2630 27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2	3 • 회원자치단체명 : 일본 효고현 • 행사명 : **국제 프런티어 산업 견본시장** • 기 간 : 9.3~9. 4 • 장 소 : 효고현 고베시 • 연락처 : 효고현 신산업과 T. +81-78-362-9054 F. +81-78-362-4273	4 • 회원자치단체명 : 중국 지린성 • 행사명 : **한중일지방정부협력회의 및 경제무역 프로젝트 매칭** • 기 간 : 9.3~9. 6 • 장 소 : 창춘시 • 연락처 : 지린성 인민정부외사판공실 아시아처 T. +86-431-88906715 F. +86-431-88906715 unkenkj@sina.com	5 • 회원자치단체명 : 한국 부산광역시 • 행사명 : **제3회 부산국제물포럼** • 기 간 : 9.3~9. 4 • 장 소 : 벡스코 • 연락처 : 부산국제물포럼 사무국 T. +82-51-711-0049 F. +82-51-747-7030 http://www.bwf.kr/2015/english/main/main/index_en.asp
9	10	11	12
16 • 회원자치단체명 : 일본 돗토리현, 효고현, 교토부 • 행사명 : **제4차 아시아태평양 지오파크 네트워크 심포지엄** • 기 간 : 9.16~9.21 • 장 소 : 돗토리현, 효고현, 교토부 • 연락처 : 돗토리현 T. +81-857-26-7637 F. +81-857-26-7561 효고현 T. +81-796-26-3783 F. +81-796-26-3785 교토부	17 • 회원자치단체명 : 중국 산둥성 • 행사명 : **제8회 중국(둥잉)국제 석유화학장비 및 기술 전시회** • 기 간 : 9.17~9.19 • 장 소 : 둥잉시 • 연락처 : T. +86-531-8606-1765	18 • 회원자치단체명 : 몽골 옵스아이막 • 행사명 : **Uvs파트너쉽 2015 무역박람회** • 기 간 : 9.18~9.20 • 장 소 : 올랑검시 • 연락처 : 옵스아이막청 T. +976-99453322 +976-99458099 Saruul02@yahoo.com	19 • 회원자치단체명 : 한국 충청북도 • 행사명 : **2015과산 세계유기농산업 엑스포** • 기 간 : 9.18~10.11 • 장 소 : 충북 과산 유기농엑스포농원 • 연락처 : 과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T. +82-43-280-5090 F. +82-43-280-5098
23 30		25	ISOFAR 2015 Goesan International Organic EXPO+Industry Fair
• 회원자치단체명 : 러시아 투바공화국 • 행사명 : **투바인문대학교 개교70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 • 기 간 : 10. 1~10. 3 • 장 소 : 키질시 • 연락처 : 투바공화국 교육과학부 T. +7-39422-62254	1 • 회원자치단체명 : 한국 부산광역시 • 행사명 :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 기 간 : 10. 1~10.10 • 장 소 : 영화의 전당 등 • 연락처 : 부산광역시청 영상문화산업과 T. +82-51-888-5134	2 • 회원자치단체명 : 러시아 사할린주 • 행사명 : **제2회 사할린 국제한국문화 예술 페스티벌 '한류열풍'** • 기 간 : 10. 2~10. 7 • 장 소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 연락처 : 사할린주문화부 T. +7-4242-72-33-37 F. +7-4242-72-41-72 up_culture@adm.sakhalin.ru	3 • 회원자치단체명 : 한국 경상북도 • 행사명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 기 간 : 10. 2~10.11 • 장 소 : 문경시 일원 • 연락처 : 경북문경 군인세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T. +82-2-748-5667
7 • 회원자치단체명 : 러시아 사할린주 • 행사명 : **제3회 사할린 국제인형극장페스티벌-'섬의 기적'** • 기 간 : 10. 6~10.16 • 장 소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 연락처 : 사할린주문화부 T. +7-4242-72-33-37 F. +7-4242-72-41-72 up_culture@adm.sakhalin.ru	8 • 회원자치단체명 : 한국 대구광역시 • 행사명 : **제5회 대구국제 커피&카페 박람회** • 기 간 : 10. 8~10.11 • 장 소 : 대구EXCO • 연락처 : Coffee Fair 사무국 T. +82-53-384-7244 www.coffeefair.co.kr	제5회 대구 커피&카페박람회 2015 DAEGU COFFEE & CAFE FAIR	
14 • 회원자치단체명 :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 행사명 : **제10차 NEAR실무위원회** • 기 간 : 10.13~10.16 • 장 소 : 이르크추크주 • 연락처 : 이르크추크주정부 경제발전부 T. +7(3952)25-61-27 T/F. +7(3952)25-65-92 E-mail: a.laman@govirk.ru	15 • 회원자치단체명 : 한국 전라남도 • 행사명 : **2015 국제농업박람회** • 기 간 : 10.15~11. 1 • 장 소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 연락처 : 전라남도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T. +82-61-339-9200	16 • 회원자치단체명 : 중국 산둥성 • 행사명 : **2015 중국 국제신재생 에너지 리튬배터리 산업박람회** • 기 간 : 10.16~10.18 • 장 소 : 자오주앙시 • 연락처 : T. +86-632-3326810	17 • 회원자치단체명 : 한국 광주광역시 • 행사명 : **2015 광주 국제디자인총회** • 기 간 : 10.17~10.23 • 장 소 : 김대중 컨벤션 센터 • 연락처 : 광주시청 도시재생국 도시디자인과 T. +82-62-613-4861
21 28	2015 International Agricultural Exhibition	23 • 회원자치단체명 : 한국 부산광역시 • 행사명 : **제70회 UN의 날 기념식** • 기 간 : 10.23 • 장 소 : 유엔 기념공원 • 연락처 : 유엔 기념공원 관리처 T. +82-51-625-0625 30	24 31

제9회 중국-동북아박람회 개막식

제10회 중국 동북아박람회
China-Northeast Asia Expo

중국 – 동북아박람회는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얻은 중국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린성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북아시아 6개국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중국의 국제종합박람회로 이미 9번의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매 회마다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동북아박람회는 이미 중국과 동북아지역 각 국과 나아가 세계 다른 나라와의 우호교류 및 경제무역촉진, 다양한 방면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정부간의 대화 및 교류를 포함하여, 동북아지역간 경제무역협력, 동북아 각국의 인문교류, 두만강유력 개발 및 국제협력, 중국 동북지역의 대외개방 등을 위하여 독자적인 역할을 통해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제10회 중국-동북아박람회는 9월 1일부터 6일까지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시, 경제무역협력, 회의 · 포럼, 인문교류를 주요내용으로 과학기술관, 한국 상품관, 타이완 상품관, 홍콩 상품관, 지린(吉林)관, 식품산업관, 의약건강산업관, 동북아 및 국제협력 산업관을 설치하여 동북아 및 세계 기타 국가와 지역의 우수하고 특색 있는 상품과 투자환경, 정책, 주요 대외 협력 프로젝트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실내의 모든 전시관은 각자의 특색이 잘 드러나도록 설계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제8회 동북아협력 고위급포럼을 포함한 제1회 한중일지방정부협력회의 및 경제무역 프로젝트파트너링 등 고위층 회의 · 포럼과 경제무역 촉진 및 인문교류를 위한 행사가 함께 개최된다.

CNEA Expo
中国一东北亚博览会
China-Northeast Asia Expo

동북아박람회로고

동북아박람회 마스코트 요요

吉鹿优优
Lucky Deer Yoyo

삼각용만(三角龍灣)

제5회 중국-동북아박람회 개막식

제6회 중국-동북아박람회 개막식

제8회 중국-동북아박람회 투자프로젝트조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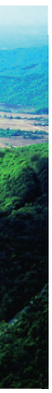
제7회 중국-동북아박람회 개막식

제8회 중국-동북아박람회개막식

제8회동북아박람회기간에 개최된 조중라선경제무역지대 및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투자설명회

관동선인(關東神韻) 문예공연

지린의 겨울풍경



창춘정월담(淨月潭) 국가삼림공원

지린향해(吉林向海)국가자연보호구

월병

회원국의 다양한 추석문화

9월을 맞이하여,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매년 가을에는 사람들이 풍요로운 곡식을 거두기 위해 풍년을 기원하였으며, 이 시기에는 각 나라마다 독특한 풍습과 놀이문화 등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NEAR 회원단체의 대표국가인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추석문화를 소개한다.

화합과 행복을 기리는 중국의 중추절

중국에서의 추석은 음력 8월 15일에 중추절을 맞이하며, 춘절, 청명절, 단오절 등과 함께 중국의 4대 명절 중 하나이다. 중추절의 의미는 中(중간), 秋(가을), 节(명절)을 합쳐 가을철의 중간을 뜻한다. 이밖에 단원절(团员节)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가족들이 한데 모여 음식을 먹고 달 구경을 하는 풍속에서 비롯되어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인다'라는 의미로 붙여졌다.

또한, 중국인들은 추석이 되면 '월병'이라는 전통음식을 먹는다. 이 월병을 은 원나라 시대에 몽고의 억압을 받은 한족들이 비밀리에 거사를 꾸미기 위해 중추절 전날, 월병을 만들어 그 안에 거사에 관한 메모를 숨겨 각 지역 동지들에게 전달한 후, 거사에 성공하였다. 이 후부터 월병을 만들어 나누어 먹는 풍습이 생겼다고 한다.

월병은 보름달 모양으로 생겼는데, 월병 안에 다양한 소(팥, 노른자, 각종 과일로 만든 잼 등)이 들어간다. 예전에는 추석시기를 맞춰 화려한 포장을 한 고가의 월병들이 유행이었지만, 요즘은 소박한 서민 월병이 유행을 하고 있다.

일본 오봉

강강술래

독특한 풍습이 존재하는 일본의 오봉

오봉(お盆)은 매년 양력 8월 15일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일본의 명절로, 조상의 영혼을 맞아들여 대접하고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날이다. 오봉은 일본의 민간 신앙과 음력 7월 15일 중국 중원절(中元節)에 행해지던 우란분회(盂蘭盆會,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제물을 마련해 공양을 드렸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법회)가 결합한 형태다. 따라서 오봉의 의례는 대부분 불교식으로 행해지지만, 예로부터 조상의 영혼을 맞이해 번영을 기원해왔던 일본의 풍습도 잘 드러난다.

지역에 따라 오봉을 쇠는 날짜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양력 8월 15일을 중심으로 한다. 공휴일이 아니기에 관공서 등은 오봉 기간에도 업무를 계속하지만, 일본 국민 대다수가 이 시기를 전후해 '오봉야스미'(お盆休み)라 불리는 긴 연휴를 즐긴다.

오늘날 오봉은 종교적인 색채가 약해지고 그 형식 또한 점차 간소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후손들의 곁으로 돌아오는 조상의 영혼을 맞이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온 가족뿐 아니라 지역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는 한여름의 축제 같은 명절로 자리잡았다.

풍년을 기리는 한국의 한가위

한국에서는 음력 8월 15일에 추석을 보낸다. 추석이라는 말 외에도, 중추절(仲秋節) · 가배(嘉俳), 가위, 한가위라고 부른다.

과거 한국의 농경사회에서는 차례, 성묘를 지내며, 조상에게 예를 다하며 풍년을 기원했다. 가족, 친지끼리, 마을 사람끼리 행사, 놀이를 즐기며 음식을 나눠먹었다. 특히, 추석에는 가족이 모여 꼭 먹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송편이다. 송편은 쌀가루로 반죽하여 소(녹두, 깨, 밤 등)을 넣어 둥글게 빚는다. 송편이란 이름은 송편을 찔 때마다 솔잎을 깔기 때문에 붙여졌다.

이 밖에 추석 전통놀이로 강강술래, 줄다리기, 가마싸움 등 보름달이 상징되는 원무가 중심이 이룬다. 하지만,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의례와 행사 등은 많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귀성 풍습은 남아있어 추석이면 많은 인구가 고향으로 돌아가, 교통혼잡을 이룬다.

순국선열을 기리는 러시아의 성 드미트리 토요일

러시아의 추석에 해당하는 날은 '성 드미트리 토요일'이다. 성 드미트리 토요일은 매년 11월 8일 직전의 마지막 토요일인데, 이날 러시아 사람들은 가까운 친척과 모여 햇곡식, 햇과일로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조상에게 성묘한다. 러시아 사람들의 생활에서 '보드카'를 빼놓을 수 없듯이, 성 드미트리 토요일에도 햇곡식으로 만든 보드카를 나눠 먹고, 새들에게도 곡식을 모이로 나눠주는 풍습이 있다.

성 드미트리 토요일의 유래는 13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부를 흐르는 돈강 유역에서 몽골군을 대파한 드미트리 돈스크공이 11월 8일 전사자를 추모하는 모임을 한 것에서 유래했다. 이후 러시아 정교회가 이날을 '성 드미트리날'로 정해 전사자와 죽은 조상을 추모하기 시작하였고, 세월이 흐르며 여기에 추수감사제의 성격이 더해지면서 러시아의 주요 명절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국 제주특별자치도

섬정책관광포럼

섬정책관광포럼

청정 제주 국제행사 소개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반기에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 준비 중이며,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다양한 행사 중에서 10월에 개최하는 행사 2개를 선정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글로벌 시대의 도약, 제주 섬관광정책포럼 (10.5~10.8)

섬 관광정책포럼이 무엇인가요?

1997년 7월 창설된 섬관광정책포럼(ITOP: Inter-Islands Tourism Policy Forum)은 회원국의 공동 관광정책 협의 및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간 협의체로, 제주도와 중국 해남성, 일본 오키나와현, 인도네시아 발리주 등 4개 창립국을 중심으로 총 14개 지역이 참여하고 있다.

창립회원국 : 제주(대한민국), 오키나와현(일본), 발리주(인도네시아), 해남성(중국)
일반회원국 : 남부도(스리랑카), 카나리아군도(스페인), 하와이(미국), 잔지바르(탄자니아), 푸켓(태국), 세부(필리핀), 페낭(말레이시아)
옵저버지역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캐나다), 캄퐁참(캄보디아), 고틀랜드(스웨덴)

세계 주요 섬관광 도시들이 모여 참여 지역 간 관광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동의 관광 관련 관심사를 논의하며, 그 실행을 협의 · 조정 · 지원해 공동의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섬관광정책포럼에서는 주제발표, 지사성장회의, 공동성명서 발표, 심포지엄 개최를 통하여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별 대학, 관광산업자 단체간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어떤 역할을 계속 해왔나요?

제주도는 19년간 세계 섬 관광지의 리더로서 섬관광정책포럼의 본부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해 오고 있다. 사무국은 제주관광 통합마케팅 기관인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에 설치 · 운영되고 있다.

1997년 제1회 창설포럼을 제주에서 개최하였으며 제주, 오키나와현, 발리주, 해남성 4개 창립회원국을 순회하며 매년 포럼을 이어오고 있다. 개최지역 또한 일반 회원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제주는 지난 18년간 제1회, 제5회, 제10회, 제15회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올해 제19회 포럼이 제주에서 5번째로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매년 섬관광 대표 도시의 공동 관심사를 중심으로 관광개발 경험 및 정보 공유, 관광루트개발 및 공동협력 마케팅, 단일 관광목적지 콘셉트 형성, 지역별 대학 · 관광사업자 단체 간 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이번 제19회 섬관광정책포럼은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이번 제19회 섬관광정책포럼은 제주도와 해남성에게는 더욱 특별한 한 해이다. 제주도와 해남성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하고 회원국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지역축제와 연계하여 도민과 관광객,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교류의 장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며,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섬관광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제주관광공사 섬관광정책포럼 사무국에서는 "제주에게 섬관광정책포럼은 세계 각국의 섬지역을 묶는 동시에 창립국이자 사무국으로서 제주의 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며 전략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섬관광정책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포럼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관광공사 섬관광정책포럼 사무국에서는 공식 홈페이지(www.itop-forum.org) 운영을 통하여 포럼 정보 및 심포지엄 발표자료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간 e-뉴스레터 발송을 통해 회원국 11개 지역의 관광동향과 관광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문화의 전승을 위한 제주 탐라문화제 (10.7~10.11)

제주의 대표 축제인 탐라문화제는 매년 10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개최하고 있으며 1962년 제주예술제라는 이름으로 개최되기 시작하여, 1965년 제4회부터 한라문화제로 명칭을 바꿔 향토문화축제로 전환했고, 2002년 제41회 때부터 탐라문화제로 개칭하여 개최해 오고 있는 문화축제이다.

탐라문화제가 무엇인가요?

탐라문화제는 탐라개벽 이래 긴 역사와 오랜 전통을 이어오면서, 제주 선인들이 창조해 낸 제주문화유산의 특성인 서민문화성과 도서문화성 고유문화성을 발굴하고, 문화재지정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위해 문화자원화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사라져 가는 제주문화를 되살리고 발전시켜 제주문화의 학술상 · 역사상 · 예술상의 독특한 가치들을 보존하고 전승해가는 제주종합문화축제이다.

올해 개최되는 탐라문화제에서는.....

제54회 탐라문화제는 제주의 민속과 문화유산, 생활문화 예술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제주도민과 관광객, 외국인들이 문화로 하나 되어 보고 즐기며 교류하는 문화축제이다. 올해는 '탐라인의 삶, 제주문화중흥시대'라는 주제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며 제주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탐라문화제에서는 기원개막축전, 제주전통문화축전, 탐라원형문화축전, 참여문화축전으로 구분하여 민속예술경연, 무형문화재 재연, 청소년 문화행사, 참여예술행사, 교류행사 등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행사가 5일 동안 열린다.

탐라문화제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기원개막축전으로 10월 7일 오전에는 탐라개벽신위제 및 만덕제가 유교식으로 제례가 봉행되며 이어서 저녁에는 행사출연단체 및 탐라문화가장행렬 등 5천여 명의 출연진이 참여하는 문화의 길 축제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이후 탑동광장에서 개막공연에 이어 k-pop 가수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10월 8일 탑동광장에서 탐라의 가락과 춤사위를 전승 선양하는 '민속예술축제'가 열려 제주시와 서귀포시 대표로 출연하는 걸궁과 민속예술부문 8개 팀이 열띤 경연이 펼치게 된다. 저녁에는 한 · 중우호행사가 이어진다.

10월 9일에는 탐라인들의 혼이 깃든 무형문화재공개재연행사와 청소년 문화축제, 제주어 축제가 진행되며, 10월 10일에는 학생민속예술축제와 제주어 말하기대회 제주어노래자랑 등 제주어 축제가 계속 이어서 열린다. 마지막 날인 10월 11일 '탐라문화가장축제'가 제주도내 43개 읍.면.동 민속보존회 회원들이 출연해서 열띤 경연을 펼치게 되며, 같은 시간대에 전국민요경창대회가 병행하여 진행된다. 저녁에는 폐막행사로 종합시상식과 축하공연 불꽃놀이에 이어 세계 여러나라의 b-boy 팀들이 참여하는 세계 스트리트댄스 경연대회로 5일간의 축제를 마감하게 된다.

이외에도 행사 기간동안 인간문화재들이 참여하는 무형문화재 공예종목 시연으로 갓일 탕건장, 망건장 등의 재연 행사와 이동박물관, '제주원형문화제전시관, 제주통과의례 재현, 민속놀이체험, 테우만들기체험, 외국인천연염색체험관 등 다양한 공연예술행사와 전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790-834)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지곡동 601) 포항테크노파크 3층

T. 054-223-2308, 2324 **F.** +82-54-223-2309 **E-mail** near@neargov.org **Website** www.neargov.org